

보고 일시	2023. 2. 16.(목) 09:00		
담당 부서	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센터	책임자	센터장 박병철 (052-928-8500)
		담당자	연구관 김혜원 (052-928-8510)
		담당자	연구사 박재은 (052-928-8511)

지역별 지진 위험도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한자리에 - 2월16일부터 17일까지 「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(워크숍)」 개최 -

-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(이하 ‘연구원’)은 2월 16일(목)부터 17일(금)까지 제주도에서 「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(워크숍)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- 「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」은 연구원이 공동사업단*과 함께 지진으로 인한 지역별 위험도를 평가하여 지진재해 예방사업 투자 우선 순위 선정 등 사전 대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2022년 5월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연구 과제이다.
 - * 세종대학교, 인천대학교, 한양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울산과학기술원, 케이아이티벨리(주)
- 이번 연수회는 연구원, 지자체 실무 담당자 및 공동연구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1차년도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연구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‘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 대회 기획 분과’로 운영되는 첫째 날에는 총 6개의 세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.
-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의 ‘지역 고유 지반운동 평가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체계(프레임워크)’를 시작으로 박지훈 인천대학교 교수의 ‘건축물 및 방재거점시설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체계’, 신지욱 경상대학교 교수의 ‘지역특성 반영 건축물 지진화재위험도 평가알고리즘의 국산화 전략’ 등이 이어서 발표된다.

- 둘째 날에는 연구원과 공동연구사업단, 지자체 담당자 등이 모여 향후 연구추진 방향 대해 논의하는 한편, 연구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.
- 이종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“최근 충북 보은(2.11. 규모2.3)과 인천 강화군 해역(1.9., 규모3.7)에서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,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선제적인 지진대책 추진이 필요하다”라고 강조하면서,
- “이번 연수회를 통해 논의되는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연구가 지자체의 지진대책 수립에 활용되는 등 현장에서 작동하는 연구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 고**「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개발 연수회」 일정****< 1일 :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1차년도 연구성과 공유 >**

• 한국방재학회 학술발표대회 기획세션 운영

- 내용 : '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' 1차년도 연구성과 공유
- 일시/장소 : 2023년 2월 16일(목) 15:10~16:40 / 라마다프라자호텔 세미나실 (제주시)

연번	발 표 주 제	소 속	발표자
1	지역고유 지반운동 평가 및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프레임워크	한국지질자원연구원	선창국 책임연구원
2	건축물 및 방재거점시설의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체계	인천대학교	박지훈 교수
3	지역특성 반영 건축물 지진화재위험도 평가알고리즘의 국산화 전략	경상대학교	신지욱 교수
4	지진 시 건축물 붕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및 복구난이도 평가	한양대학교	유은종 교수
5	지진에 대한 지역위험도 평가를 위한 활동곤란도 평가기법 및 적용사례	울산과학기술원	이영주 교수
6	지진재해 지역위험도 산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방안	케이아이티밸리(주)	권기봉 전문연구위원

< 2일 :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평가기술 연구추진 방향 논의 >

- 내용 : 공동연구사업 2차년도(2023년) 연구추진 방향 및 지자체 실무자 회의
- 일시/장소 : 2023년 2월 17일(금) 09:00~12:00 / 휘슬락호텔 (제주시)

시간	내용	참석자
09:00 ~ 12:00	2차년도 연구추진 방향 논의, 지진재해 지역위험도 연구성과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의견수렴	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공동연구자, 지자체 실무자